

글렌 스타센(Glen H. Stassen)의 평화윤리 연구

김종화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서론

II.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사상적 토대

1.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
2. 국제주의적 맥락과 가족적 배경
3. 정의와 평화의 성서적 토대

III.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핵심 구조

1. 정의로운 평화조성
2. 10가지 실천 방법
3. 변혁적 주도행위와 비폭력 직접 행동
4. 성육신적 제자도

IV.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의의와 한계

1. 스타센의 공헌과 의의
2. 스타센의 한계와 과제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10>

• ABSTRACT •

A Study of Glen H. Stassen's Peace Ethics

Adjunct Prof., Jong Hwa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ersistence of wars and conflic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underscores the continuing urgency of peace ethic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Glen H. Stassen's peace ethics as an alternative paradigm that transcends both just war theory and pacifism, assessing its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along with its limitations. Grounded in the tradition of Christian pacifism, the internationalist vision of his father Harold Stassen, and the ethics of the Bible and Jesus, Stassen advances four core components: just peacemaking, the "ten practices," transforming initiatives and nonviolent direct action root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incarnational discipleship. These components collectively shape concrete and applicable frameworks for peacemaking.

Stassen's work offers an integrated paradigm uniting justice and peace, systematizes historically proven practices, and fosters multi-level networks from individuals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also reflects limitations, including insufficient engagement with power politics and structural injustice, the tension between theological particularity and public universality, insufficient attention to moral agency, and a Western-centric approach. While providing significant insights for contemporary Christian peace ethics, Stassen's framework requires transformative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 to address multicultural realities.

Key words: Glen Stassen, Peace Ethics, Just Peacemaking, Nonviolent Direct Action, Incarnational Discipleship

I. 서론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윤리 과제 중 하나로 자리해 왔다. 특히 20세기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폭력의 세기’¹⁾로,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극단의 시대’²⁾로 규정할 만큼 전쟁과 폭력이 심화된 시기였다. 월터 윙크(Walter Wink)의 지적처럼, 20세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그 이전의 5,000년 동안의 전쟁 희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비극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³⁾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및 이란과의 갈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지속되는 내전 등은 여전히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더 나아가 핵무기 확산, 테러리즘의 심화, 사이버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식이 등장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한층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통적인 전쟁 윤리의 틀만으로는 현대 세계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적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억제하거나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윤리적 성찰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로운 평화조성(just peacemaking)’⁴⁾을 제안한 글렌 스타센(Glen H. Stassen)의 평화윤리는

1)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1970), 3.

2) Eric Hobsbawm,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Vintage, 1996), 11.

3) Walter Wink, *The Powers That Be: Theology for a New Millennium*, 2nd ed. (New York: Doubleday, 1999), 137.

오늘날의 갈등 상황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그의 깊은 신학적 성찰과 국제 협력에 대한 관심 및 다양한 종교적·세속적 전통들과의 대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는 기독교 윤리학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평화와 정의의 문제들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전통적인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의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21세기 기독교 평화윤리학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스타센의 평화윤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사상적 토대, 핵심 구조 및 비평적 성찰을 통해 그의 기여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사상적 토대

1.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 특히 유럽과 미국의 침례교 및 재세례파 사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산상수훈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재발견하려는 그의 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스타센은 그의 저서 『하나님 나라 윤리: 우리 시대의 산상

4) 스타센의 핵심 개념인 just peacemaking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1판에서는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로, 2판에서는 ‘정당한 평화 만들기’로 옮겼다. 필자 역시 「한반도 상황에서의 기독교 정의로운 평화 이론의 모색」(『기독교사회윤리』 제57집, 2023)에서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평화 만들기’라는 번역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이는 just war를 ‘정당전쟁론’으로 번역하는 것과의 대칭성을 의도한 표현일 수 있으나, 전쟁과 달리 평화를 수식하는 말로서는 ‘정당한’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평화 만들기’라는 표현이 직관적이고 간결한 장점은 있으나, ‘평화조성’이라는 용어가 점진적·협력적·포괄적 성격을 지닌 평화 형성 과정의 의미를 더 충실히 담아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타센의 just peacemaking을 ‘정의로운 평화조성’으로 번역한다.

설교』⁵⁾에서 현대 기독교 윤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와 산상수훈을 외면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기독교의 도덕적 실천, 신앙 및 증거의 왜곡된 발전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⁶⁾ 이에 따라 스타센은 평화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성경적 제자도와 평화 조성 활동으로 정의하며, 철학적 사변이 아닌 성경과 예수의 삶에 기반한 실천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센은 평화주의 사상 안에서 침례교와 재세례파의 역사적 전통을 깊이 탐구한다. 그는 침례교 평화주의자 연구의 권위자인 폴 데카(Paul Dekar)를 인용하며, “침례교 평화주의의 핵심 주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침례교인이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진지하게 선택할 때 가능하다”⁷⁾고 강조한다. 재세례파 평화주의 모델에 대해서는, “이 전통은 16세기와 17세기에 재세례파와 웨이커들이 평화교회 전통을 회복·발전시키며 형성되었고, 산상수훈에 가장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⁸⁾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재세례파 윤리학자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평화주의를 높이 평가하며, 요더의 평화주의가 단순히 전쟁의 파괴성이나 더 효율적인 평화적 대안에 대한 실용적 논증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제자도의 본질—곧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⁹⁾

5) David P. Gushee and Glen H. Stassen,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2nd ed., 박규태 역, 『하나님 나라 윤리: 우리 시대의 산상설교』 (서울: 비아토르, 2024)

6) David P. Gushee and Glen H. Stassen,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7), xvi

7) Glen H. Stassen, “Baptist as Peacemakers,” in *The Fragmentation of the Church and Its Unity in Peacemaking*, ed. Jeffrey Gros and John D. Remp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185.

8) Glen H.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37.

9) 위의 책, 231-2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센은 요더의 평화주의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스타센에게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은 평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적용을 보여주는 침례교 전통의 대표적인 역사적 모델이다. 스타센의 평화윤리에 있어서 “인종분리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폭력 저항의 전통에 보다 의존”¹⁰⁾한 것으로 평가된 킹의 시민권 운동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독교 평화주의가 개인적 신념이나 교회 내부의 실천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불의와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는 공적인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비폭력 직접 행동이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변혁적인 평화조성의 효과적 방법임을 실증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타센은 평화주의 사상이 현실 도피적이거나 무력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 국제주의적 맥락과 가족적 배경

스타센의 평화윤리에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뿌리가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독특한 사상적 배경 중 하나다. 데이비드 거쉬(David Gushee)가 지적했듯¹¹⁾, 글렌 스타센은 그의 아버지 해럴드 에드워드 스타센(Harold Edward Stassen, 1907-2001)을 빼놓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해럴드 스타센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자 군인, 변호사로

않았는데, 그는 요더가 온전히 산상수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의 오랜 영향력으로 인해 산상수훈을 불가능한 이상이나 어려운 가르침으로 만드는 오해 때문에, 윤리학자들 사이에 산상수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널리 퍼진 편견들” 때문이었다고 스타센은 설명한다. Glen H. Stassen, “We Need a New Reformation,” in *The New Evangelical Social Engagement*, ed. Brian Steensland and Philip Gof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01.

10) Stassen, “Baptist as Peacemakers,” 187.

11) David P. Gushee, “Glen Harold Stassen: Baptist Peacemaker, Global Christian Ethicis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 no. 2 (2013): 101

서 미네소타 주지사를 역임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차례 출마했다. 특히 그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국제연합(UN) 창설에 기여한 창립 멤버이자 UN 헌장 서명자였으며, 세계기구의 강화를 적극 지지했다.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에서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일명 ‘평화의 장관’)으로 활동하며 국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은 스타센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UN 지지 성향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했던 경험과 국제주의적 신념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전승되었고, 이는 스타센의 사상적 토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는 “우리는 UN에 의해 뒷받침되는 새로운 지구적·국제적 안보와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¹²⁾고 강조하며, 국제주의를 단순한 이상주의적 구호가 아닌, 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 국제 협력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제시하였다.

스타센이 신학자가 되기 전에 핵물리학을 전공하려 한 결정은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원자무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핵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통적인 정당전쟁론의 기준을 무력화시켰고, 이에 따라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핵무기 확산 방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의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 모두 핵전쟁은 부당하며, 기독교인은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¹⁴⁾는 주장을 강조하며, 핵무기 시대에는 전쟁 윤리의 이분법적 범주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핵무기 사용이 초래하는 실존적 위

12)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97.

13) Gushee, “Glen Harold Stassen,” 102.

14)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90.

협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성향은 스타센이 평화윤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전 세계 학자와 실천가들과 협력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¹⁵⁾ 아버지 해럴드 스타센이 UN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 협력과 공동 노력의 가치는 글렌 스타센의 학문적 탐구와 실천 방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UN 중심의 국제 협력을 지지했던 아버지의 이상을 계승하면서, 평화주의와 정당전쟁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의 사람들과 공유된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적 목표 아래 전쟁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였다.

3. 정의와 평화의 성서적 토대

지금까지 스타센의 평화윤리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과, 가족적 배경에서 비롯된 국제주의적 성향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의 평화윤리가 궁극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성서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본질적으로 성서 해석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두 축으로 전개된다. 이 두 차원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정의로운 평화’라는 통합된 비전으로 수렴된다.

첫째, 스타센의 평화 이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shalom*)에 뿌리를 두고, 신약에서는 이사야 예언자 전통에 기반한 예수의 자기 이해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그는 요더의 지적을 빌려 ‘평화주의자’(pacifists)라는 용

15) 스타센과 협력한 인물들은 신학자들뿐 아니라, 국제관계와 갈등 해결 전문가 브루스 러셋(Bruce Russett),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폴 W. 슈뢰더(Paul W. Schroeder), 평화운동가 스티븐 브리온-마이젤스(Steven Brion-Meisels), 화해 촉진가 데이비드 스틸(David Steele), 종교 간 공중보건 전문가 게리 건더슨(Gary Gunderson)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어가 라틴어 '*pacem facere*'에서 유래했으며, 본래 '평화 조성'을 뜻한다고 강조한다.¹⁶⁾ 이는 평화를 단순히 갈등의 부재라는 소극적 상태로 보지 않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과정, 곧 '적극적 평화'의 실천으로 이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타센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능동적으로 평화를 실천한 평화조성의 대표적 역사적 모델이다. 그는 "평화조성은 단순히 처벌을 유보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출 3),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롬 5:1-21) 극적인 주도권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린 성서적 실천"¹⁷⁾ 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스타센이 이해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위이며, 이는 그의 평화윤리 전반을 꿰뚫는 핵심 원리로 자리한다.

둘째, 스타센은 평화윤리에서 평화와 더불어 정의의 차원을 강하게 부각한다. 그는 성서에서 천 번 이상 언급되는 정의 개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독교 윤리 안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한다.¹⁸⁾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이 정의를 주로 세속적 개념에서 차용하며, 이를 기독교적 사랑과 대조시키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진다고 비판한다.¹⁹⁾ 스타센에 따르면, 성서적 정의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쉬파트(*mishpat*)'와, 구원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체다카(*tsedaqah*)'를 통합하는 개념이다.²⁰⁾

16) Stassen and Gushee, *Kingdom Ethics*, 1st ed., 170. 이런 점에서 스타센은 '정의로운 평화'라는 용어보다 '정의로운 평화조성'이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17)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21-22.

18)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1st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345.

19) 위의 책.

스타센에게 성서 윤리의 중심 주제로서 정의의 절정은 예수의 예언자적 전통에서 드러난다. 그는 정의를 고대 철학의 덕목 전통뿐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중심 덕목이자 전인적 성품을 위한 기초적 확신”으로 이해하며, 복음서 내러티브 전반에 깊이 스며 있는 주제로 본다.²¹⁾ 이사야의 예언자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탐욕, 권력 지배, 폭력, 공동체 배제라는 네 가지 불의에 맞서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²²⁾하는 사명을 수행했다. 특히 스타센은 ‘참여적 정의(participative justice)’²³⁾라는 개념을 통해, 예수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된 구조와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실천”²⁴⁾을 제시했다고 강조한다.

정리하면, 스타센에게 평화와 정의는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의 통합적 실천으로서 긴밀히 맞물려 있다. 예언자적 전통 속의 성서적 통합은 그의 평화윤리가 신학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정의와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III.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핵심 구조

1. 정의로운 평화조성

기독교 윤리학에서 전쟁과 평화 논의는 전통적으로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라는 두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서 발전

20) 위의 책, 36.

21) 위의 책, 346.

22) 위의 책, 355-365.

23) 위의 책, 355.

24) Gushee and Stassen, *Kingdom Ethics*, 2nd ed., 96.

한 정당전쟁론은 *jus ad bellum*(전쟁 개시의 정의)과 *jus in bello*(전쟁 수행의 정의)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반면, 평화주의는 어거스틴 이전의 초대교회 전통과 재세례파 사상에 뿌리를 두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거부한다. 정당전쟁론은 전쟁의 도덕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전쟁 예방이나 평화 구축에는 소극적이고, 평화주의는 폭력 거부라는 명확한 원칙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불의의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스타센의 평화윤리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의 윤리—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에 근거한 성서적 제자도와 평화조성의 방법론”²⁵⁾으로 정의한 바—에서 도출되는 정의와 평화의 통합, 곧 ‘정의로운 평화’라는 제3의 윤리적 패러다임에 있다.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면 결국 정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불의를 방치한 채 유지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단순한 질서 유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스타센은 정의와 평화를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안한다.²⁶⁾

한편,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은 뚜렷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을 강조한다. 이는 불완전한 현재 속에서의 평화조성 노력이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종말론적 참여임을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며 스타센은 예수의 평화조성을 로마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선택한 열심당(Zealots)과 대비시킨다. 그는 악한 세력에 맞서는 방식으로 요더가 말한 “어린 양의 추종자

25) Glen H.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Cleveland: Pilgrim Press, 2008), 12.

26)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2.

들(followers of the Lamb)²⁷⁾ 개념을, 그리고 리처드 헤이즈(Richard Hays)가 제시한 “예수는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결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²⁸⁾”는 해석을 수용한다.

구체적으로, 스타센은 다른 윤리학자들과 함께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만으로는 오늘날의 평화와 전쟁의 윤리를 감당할 수 없다²⁹⁾”고 주장하며, 1993년 미국 기독교윤리학회(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평화 이니셔티브(Just Peacemaking Initiative, JPI)’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이후 다양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리사 캐힐(Lisa Cahill)은 이를 두고, “정의로운 평화조성 프로젝트는 예수의 가르침과 강한 기독교 제자도 의식으로부터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훌륭한 노력³⁰⁾”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녀는 “세계화 시대의 효과적인 사회적 행동에 관한 정치학자들의 최근 논의 역시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론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³¹⁾”고 덧붙였다.

2. 10가지 실천 방법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론은 그의 대표적인 ‘열 가지 실천(10 Practices)’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어 왔다. 이 실천들은 JPI

27)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58.

28)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One, 2013), 329

29)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2.

30) Lisa Sowle Cahill, “Just Peacemaking: Theory, Practice, and Prospects,”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1 (2003): 195.

31) 위의 책.

(정의로운 평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폭넓은 합의를 거쳐 제안한 것으로, 신학적 담론을 넘어 공적·국제적 평화 논의의 장에서도 스타센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열 가지 실천은 스타센 평화윤리의 핵심 방법론이자, 그 이론을 실제 역사와 정치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틀로 간주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³²⁾

- 1) 비폭력 직접 행동을 지지하라
- 2) 독립된 주도권을 행사해 위협을 줄이라
- 3)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책을 사용하라
- 4) 분쟁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라
- 5) 민주주의, 인권,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라
- 6)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라
- 7) 국제 체제 안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신흥 세력과 함께 일하라
- 8) 국제연합 및 국제기구들을 강화하라
- 9) 공격 무기와 무기 교역을 줄이라
- 10) 평화를 만들어내는 풀뿌리 그룹들과 자원봉사 단체를 격려하라

이 열 가지 실천은 구조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첫 네 가지는 평화의 영역(제자도와 평화조성의 주도권)에, 다음 두 가지는 정의의 영역(모든 이를 위한 정의 증진)에, 마지막 네 가지는 공동체 회복의 영역(사랑과 공동체, 협력적 힘의 강화)에 속한다.

1) 첫 번째 영역: 평화 (1-4번) - 스타센은 비폭력 직접행동, 독립적 주도권, 협력적 해결, 책임·회개·용서라는 네 가지 실천을 제자도와 평화 조성 주도권의 핵심 범주로 본다. 이 실천들은 단순한 소극적 회피가 아

32) David P. Gushee and Glen H. Stassen, 『하나님 나라 윤리: 우리 시대의 산상설교』, 박규태 옮김 (서울: 비아토르, 2024), 598-608.

나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방식이며,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원수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잘못을 바로잡는다. 또한 갈등 당사자를 포용하는 공동체로 초대하게 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천되며, 실제로 국제·국내 분쟁에서 긍정적 변화를 입증했다. 결국 이 네 가지 실천은 ‘변혁적 주도’라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검증된 전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사례들이다.³³⁾

2) 두 번째 영역: 정의 (5-6번) -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실천은 민주주의·인권·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포함한다. 겉보기에는 세속 사회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스타센은 이들이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원 속에 청교도 언약 전통과 자유교회 청교도주의의 종교 자유,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의 세속적 발전이 함께 자리한다고 설명한다.³⁴⁾ 또한 경제 영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예수의 부와 빈곤에 관한 가르침과 언약적 정의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세 번째 영역: 공동체 회복 (7-10번) - 마지막 네 가지 실천은 사랑과 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스타센은 정의로운 평화조성의 목표를 ‘언약 공동체(covenant community)’로 설정하며, 이를 위해 적대자·소외된 자·무시받는 이들을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지속적 관계 구축과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힘이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결속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³⁵⁾

스타센의 열 가지 실천은 그의 평화윤리를 ‘실천 중심적’ 방법론으로 확립한 핵심이었다. 이는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의 한계를 넘어 양 전통을 창의적으로 통합한 구체적 사례이며, 다양한 배경의 학자와 평화 활동

33)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22.

34) Stassen, *A Thicker Jesus*, 60.

35)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28.

가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통의 행동 지침을 제공했다.

3. 변혁적 주도행위와 비폭력 직접 행동

변혁적 주도행위(transformative initiative)는 갈등 상황에서 기존의 양자택일을 넘어서는 제3의 창조적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스타센 평화윤리의 실천 방법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의 윤리에서 출발하며, 스타센은 이를 평화윤리의 핵심 토대 중 하나로 보았다. 그는 변혁적 주도행위를 간과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윤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는 거의 언제나 어떤 세속적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의 권위에 의존하는 윤리로 귀결된다”³⁶⁾고 경고한다.

스타센은 갈등 상황을 세 단계의 패턴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 전통적 의의 패턴은 유대 전통에서의 동해보복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 5:38)을 의미한다. 2) 죄의 패턴은 이를 왜곡하여 악한 방식으로 보복하는 행위(마 5:39)를 의미한다. 3) 변혁적 주도행위는 예수가 제시한 제3의 길, 즉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마 5:39-42)는 대응을 의미한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행위로, 심각한 모욕과 사회적 차별을 뜻했다. 왼뺨을 돌려대는 행동은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치도록 만들며, 이는 ‘나는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이야기에서 소개된 것처럼 변혁적 주도행위는 피해자가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부당한 관계 구조를 흔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스타센에게 변혁적 주도행위란, “문화 속 권력과 권위에 무

36) Gushee and Stassen, *Kingdom Ethics*, 2nd ed., 93.

비판적으로 순응하려는 경향, 그리고 그 결과 예수를 주변화시키는 경향³⁷⁾에 맞서는 개념이다. 정의로운 평화를 지향하는 그의 평화윤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순응(제1 패턴)이나 무조건적 반대(제2 패턴)를 모두 지양하고, 정의와 평화를 창조적으로 구현하는 제3의 길, 곧 변혁적 주도행위(제3 패턴)를 추구한다. 그러나 스타센은 산상수훈의 윤리를 단순한 대조법이나 불가능한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핵심은 부정적 금지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해방의 길이자 실천 가능한 변혁적 주도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³⁸⁾ 이는 산상수훈이 추상적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변혁의 방법론임을 보여준다.

스타센이 말하는 변혁적 주도행위는 종종 ‘비폭력 직접 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으로 구체화된다. 그는 이를 예수의 비폭력 정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으로 보았으며,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저항 전략³⁹⁾”으로 정의했다. 예수가 가르친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역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평등한 존엄성을 일깨우는 변혁적 행동의 한 예다. 이러한 비폭력성은 다른 많은 평화윤리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스타센 평화윤리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는다.

스타센에 따르면, 간디(Mahatma Gandhi)와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해 변혁적 주도행위를 성취한 역사적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 비폭력 활동가로서, 그들의 시민권 운동은 “불의에 반대하고,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며, 화해로 초대함으로써 악에 저항하는”⁴⁰⁾ 것으로 이해

37) 위의 책, 93.

38) 위의 책, 94.

39) 위의 책, 467.

40) 위의 책, 99.

된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사회·국가적 맥락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의로운 평화조성을 실천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간디는 힌두교, 킹은 기독교 전통에 기초했으나, 비폭력 직접 행동의 적용은 모두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비폭력 직접 행동은 “조직된 시위, 보이콧, 비협조 운동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며, 부당한 정책 변화를 강제하는 것”⁴¹⁾으로 나타난다. 스타센은 비폭력이 사람들을 위한 전략일 뿐 아니라 정부가 채택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⁴²⁾

JPI에 따르면, 비폭력 직접 행동은 마틴 루터 킹의 미국 시민권 운동뿐 아니라, 간디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독립운동에도 적용되었으며, 필리핀과 이란에서 독재 종식, 폴란드·동독·중부 유럽에서의 혁명 촉진, 과테말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 등지의 인권 운동에도 활용되었다.⁴³⁾ 산상수훈에 기초한 스타센의 평화윤리에서 핵심 개념인 변혁적 주도행위와 그 실천 양식으로서의 비폭력 직접 행동은 이제 전 세계적 차원의 몇몇 평화운동의 사례 속에서 실천적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4. 성육신적 제자도

성육신적 제자도(*incarnational discipleship*)는 스타센의 평화윤리뿐 아니라 그의 기독교 윤리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그는 마지막 저작 『더 두터운 예수: 세속 시대의 성육신적 제자도(*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in a Secular Age*)』에서 이 개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현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41) 위의 책.

42)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21.

43)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강화하고, 미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적 증언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다”⁴⁴⁾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타센은 성육신적 제자도를 “갈릴리의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두터운 해석, 모든 삶에 걸친 하나님의 주권(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를 이끄는 성령의 역사”⁴⁵⁾로 설명하며, 그 뿌리를 삼위일체 사역에 둔다. 이 개념은 정의로운 평화 윤리와 하나님 나라 윤리를 하나의 신학적 틀로 통합한다. 그는 리사 캐힐이 제시한 기독교 평화주의의 두 형태—1) 의무적 규칙으로서 비폭력에 헌신하는 방식, 2) 삶의 방식(제자도의 방식)으로서 비폭력에 헌신하는 방식—을 인용하며, 두 번째 방식을 자신의 평화윤리 방법론의 핵심으로 채택한다.⁴⁶⁾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정의로운 평화조성 방법을 절대 평화주의 전통과 구별하고, 의무 규범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스타센은 이러한 맥락에서 삼위일체 신학 중 기독교론에 주목한다. 그는 “제자도는 구현된, 곧 성육신적 기독교론—따라야 할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관점—에 기초한다”⁴⁷⁾고 말한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행동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예수의 평화조성을 위한 변혁적 주도행위를 제시하며,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평화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4) David P. Gushee and Reggie L. Williams, “Introduction: Incarnational Discipleship and A Thicker Jesus,” in *Justice and the Way of Jesus: Christian Ethics and the Incarnational Discipleship of Glen Stassen*, ed. David P. Gushee and Reggie L. Williams (Maryknoll, NY: Orbis Books, 2020), 2.

45) Stassen, *A Thicker Jesus*, 18-20

46) Gushee and Stassen, *Kingdom Ethics*, 2nd ed., 328.

47)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9.

IV.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의의와 한계

1. 스타센의 공헌과 의의

1) 정의와 평화의 통합적 패러다임

스타센의 평화윤리의 가장 큰 기여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통합적 패러다임, 곧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론을 제시한 데 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정당전쟁론자도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 입장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전에 전쟁을 방지하는 정의로운 평화조성에 초점을 두어 상충할 수 있는 정의와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려 했다. 이렇게 정의로운 평화조성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제3의 윤리로 제안되었다.⁴⁸⁾

스타센의 정의와 평화에 관한 통합적 접근은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신학적으로 그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의 윤리로부터 정의와 평화를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하여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 했다. 둘째, 그의 평화윤리 방법론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가능한 10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 전환시켰다. 셋째, 학제적으로 신학자뿐 아니라 국제관계학자, 정치학자, 평화활동가 등과의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조성 윤리는 기독교 전통 안팎의 많은 학자와 실천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정의로운 평화 담론을 형성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정당전쟁론에 속했던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드류 크리스텐센(Drew Christiansen S.J.), 토바이어스 원라이

48) 위의 책, 12.

트(Tobias Winright), 로리 존스톤(Laurie Johnston), 마크 올맨(Mark H. Allman) 등은 정의로운 평화조성 패러다임을 정당전쟁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정당전쟁 전통이 정당성의 엄격한 기준과 적용을 거칠 때 결국 평화조성의 목적을 지향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전쟁적 평화조성’이라 불렀다.⁴⁹⁾ 또한 엘리 매카시(Eli McCarthy)는 가톨릭 사회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CST)와 인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 이론을, 특히 덕 윤리학 전통과 결합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앞장섰다. 그는 인권 담론 요소를 반영한 덕 중심 비폭력 평화조성 평가 방식이 규칙·전략 중심 검토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한다고 보며, 스타센의 성품 윤리에 기초한 평화윤리 방법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⁵⁰⁾

제네바 대학 교수이자 제네바 협정에 참여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에 적극 관여한 피에르 알란(Pierre Allan)과 알렉시스 켈러(Alexis Keller)는 정의로운 평화를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핵심 요구를 일부 포기하며, 공동으로 마련한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함께 달성하는 과정”⁵¹⁾으로 정의하고, 이를 국제 분쟁과 갈등 중재의 원칙으로 제안했다. 노틀담 크룩 국제평화연구소의 평화사 연구로 기여한 데이비드 코트라이트(David Cortright) 역시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이를 “평화조성 전통들을 종합하고 비폭력 원칙에 핵심적 비중을 두는 작업”⁵²⁾으로 평가했다. 이처

49) Drew Christiansen, SJ, Tobias Winright, Laurie Johnston, and Mark H. Allman, “Must Just Peace and Just War be Mutually Exclusive?” *Horizons*, 45, no. 1 (2018), 107.

50) Eli Sasaran McCarthy and William O’Neill, *Becoming Nonviolent Peacemakers: A Virtue Ethic for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U.S. Policy* (Eugene, OR: Wipf & Stock Pub, 2012), 2.

51) Pierre Allan and Alexis Keller, eds., *What Is a Just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52) David Cortright,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New York: Cambridge

럼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조성은 기독교 신학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종교·학문 전통과 실천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21세기 평화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실천 중심적 방법론

스타센 평화윤리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10가지 실천을 중심으로 한 윤리 방법론이다. 첫째, 이 목록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정의로운 평화 실천을 위한 포괄적·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론적 사변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센은 “경험적 역사 밖의 이상에 윤리를 두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전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실천에 윤리를 기초한다”⁵³⁾고 밝혔다.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한다.⁵⁴⁾

예를 들어, 1986년 필리핀의 피플 파워(EDSA) 혁명은 수백만 시민의 비폭력 저항으로 마르코스 독재를 종식시켰고, 1989년 동독의 라이프치히 월요시위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했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는 넬슨 만델라와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오랜 비폭력 투쟁이 아파르트헤이트 해체로 이어졌다. 또한 1993년 오슬로 협정과 냉전 종식 과정의 군축 협상은 독립적 주도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UN 평화유지활동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적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1991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UN 과도 통치기구(UNTAC)가 성공적으로 평화적 전환을 이끌었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12년 내전이 UN 중재로 평화

University Press, 2008), 20.

53)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1-12.

54) 위의 책, 116-128.

롭게 종결되었다. 에리트레아와 나미비아에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적 개입이 독립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민주화 물결과 동유럽 체제 전환 등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다양한 사례가 탐구되었다. 이처럼 스타센의 10가지 실천에 기초한 실천 중심 접근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평화적 변화들을 통해 그 실효성과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입증받았다.

둘째, 10가지 실천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결된 체계를 형성한다. 풀뿌리 그룹과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시민들의 평화 의식을 함양하여 비폭력 직접 행동 확산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은 투명한 정치 과정과 법치주의를 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무력 대신 제도적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적 갈등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무역과 투자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로 갈등보다 협력이 더 큰 경제적 효용을 제공함을 보여주어 국제 협력의 물질적 동기를 부여한다. 핵무기와 공격 무기 확산 축소는 대량살상무기의 실존적 위협을 줄여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고, 국가들이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우호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신뢰 구축과 국제기구의 중재를 촉진한다. 이처럼 10가지 실천은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닌 순환적·상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의 실천이 성공할수록 다른 실천들의 성과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승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스타센의 10가지 실천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들과 구별된다. 이는 평화조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평화윤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이 10가지 실천을 토대로 비폭력 운동의 성공률과 참여 규모,

국제기구의 갈등 예방·해결 건수, 민주주의 지수와 인권 상황 개선 정도,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무역 분쟁 감소율, 핵무기 및 군비 축소 수치 등을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 실천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정책 결정자와 시민사회가 평화조성 노력의 진전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스타센의 10가지 실천에 기초한 평화윤리는 문화, 정치 체제, 경제 발전 수준, 종교 전통의 경계를 넘어 어떤 국제 분쟁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방법론의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그의 실천 중심 평화윤리 방법론은 21세기의 복잡적·다층적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윤리적 실천의 다층적 주체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정의와 평화의 실천 주체에 있어서 다층적·다원적 통합 접근을 취한다. 그는 교회와 종교 공동체,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지향했으며, 특히 국제기구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했다. 스타센은 국제기구를 “국가적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상호 권고·이해·소통, 그리고 공동의 기억과 서사를 형성하는 심의기구”⁵⁵⁾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국제 협력이 민족주의적 자기 이익 추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국제기구가 갈등 중재, 정보 제공을 통한 협상 불확실성 완화, 물질적 이익의 포용적·장기적 확장, 규범 형성, 국가 간 상호 동일시 서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⁵⁶⁾ 그는 냉전 종식 후 UN이 소말리아와 구유고슬라비아의 갈등 조정, 캄보디아·엘살바도르·에리트레아·나미비아에서 평화적 전환과 민주 선거

55) 위의 책, 31.

56) 위의 책, 126.

를 촉진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⁵⁷⁾

또한 스타센의 평화윤리에서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이다. 그는 “교회들은 자신이 속한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데(렘 29:7) 헌신하며, 후퇴나 정적주의, 또는 정부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나 의존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의 문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증진한다”⁵⁸⁾고 강조한다. 또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자도의 의미를 함께 분별할 때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실천적 도덕 추론의 과정을 구조화한다. 신실한 공동체라면 모든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갈등 해결 과정을 구현한다”⁵⁹⁾고 역설하며,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평화윤리 실천의 주요 행위자로 본다. 예를 들어,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와 독일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는 나치에 맞서 신앙의 진정성을 지키며 정치적 저항을 실천했다. 프랑스 르상봉 마을(Le Chambon-sur-Lignon)의 앙드레 트로크메(André Trocmé)와 개신교 회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보호·구출하는 비폭력 저항을 행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의 흑인 침례교회는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시민권 운동을 전개했고, 클레런스 조던(Clarence Jordan)과 남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는 인종 통합적인 농업 공동체를 실험했다. 한편, 도로시 데이(Dorothy Day)와 가톨릭 노동자 운동(Catholic Worker Movement)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며 평화주의를 실천했다.⁶⁰⁾ 이러한 정의로운 평화조성의 역사적 실천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 귀중한 영감과 지침을 제공한다.

결국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제시하는 다층적 행위자 모델은 평화조성이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풀뿌리 공동체의 자발적

57) 위의 책, 128.

58)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8-19.

59) 위의 책, 31.

60) Stassen, *A Thicker Jesus*, 21-40.

참여에서부터 국제기구의 제도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적 연대가 동시에 요구됨을 보여준다. 특히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도덕적 상상력과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로서, 세속 기관들과의 건설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의로운 평화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스타센 평화윤리의 중요한 통찰이다.

2. 스타센의 한계와 과제

1) 권력정치와 구조적 불의에 대한 고려 부족

정의로운 평화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몇몇 학자들로부터 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로널드 스톤(Ronald H. Stone)은 “정의로운 평화조성의 기초 철학이 고독한 초강대국의 정책을 인도하고 제한하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⁶¹⁾고 지적하며, 초강대국의 권력 정치와 국가 이익 추구라는 현실 속에서 스타센 이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리사 캐힐도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이론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들로 공식화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만약 스타센과 동료들이 그들의 이론이 주장하는 만큼 실용적이고 효과적임을 설득하려면, 죄가 핵심 신학 교리로, 그리고 힘이 평화조성 실천의 요소로 등장해야 한다”⁶²⁾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스타센은 자신의 평화윤리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현실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10가지 실천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의로운 평화 이론이 추상적·이상주의적

61) Ronald H. Stone,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 no. 1 (2003): 256.

62) Cahill, “Just Peacemaking Theory: Theory, Practice, and Prospects,” 200-201.

평화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평화조성 방법에 기초한 실용적 접근임을 의미한다. 그는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63)를 “경험적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특히 불쾌하고 최악적이며 위협적인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는”(64) 접근으로 정의한다. 스타센에 따르면 이러한 니버의 이해가 그의 정의로운 평화조성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조성 이론은 경험적 역사 밖의 이상에 윤리를 두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전쟁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실천들에 윤리를 기초한다”(65)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화윤리 핵심 방법론인 10가지 실천을 살펴보면 여전히 현실주의적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UN과 국제협력 강화’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과 같은 실천 항목들은 강대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저항과 같은 구조적 장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나 강대국의 경제·군사적 우위는 실제로 국제협력을 제약할 수 있음에도, 스타센은 이를 간과한다. 다시 말해, 그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초강대국의 권력 정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 등 복합적 역학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다른 학자들도 제기한다. 카일 램블렛(Kyle Lambelet)은 스타센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지나치게 얇아 복잡한 경험적 사례들에서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66) 동

63) 그러나 스타센은 니버의 신학구조 전체를 긍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니버가 “약한 기독교론, 교회론, 종말론을 가졌으며, 19세기 개인주의적 예수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Glen H. Stassen, *A 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128.

64)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1.

65) 위의 책, 11-12.

료인 거쉬도 스타센의 10가지 실천이 “다소 이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이며, “전쟁을 예방하는 데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⁶⁷⁾고 지적한다. 실제로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 실패나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UN의 무력함은 비폭력 접근과 국제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스타센은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론이 지닐 수 있는 한계와 제약을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다. 종합하면, 그의 평화윤리는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구조적 불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2) 신학적 특수성과 공적 보편성의 긴장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직면한 또 다른 딜레마는 기독교 신학의 특수성과 세속적 공적 영역의 보편성 사이의 긴장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평화윤리는 침례교 전통에 기초한 기독교 평화주의와 국제적 협력을 지향하는 국제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있다. 그러나 전자는 예수의 산상수훈 등 특수한 신학 토대와 신앙 공동체의 실천에, 후자는 세속적·보편적인 국제정치학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학준은 스타센이 “그의 10가지 실천이 지구 사회에서 공적 윤리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명시적 신학 언어와 상징을 제거한다”⁶⁸⁾고 지적한다. 이러한 간극은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한

66) Lambelet, Kyle. “Just Peacemaking: Practices, Norms, and Ends After Twenty-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SCE), Doubletree, Portland, OR, Jan 4-7, 2018.

67) David P. Gushee, “A Critical Realist Engagement with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Approach,” in *Alternative Approaches in Conflict Resolution*, ed. Martin Leiner and Christine Schliess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93.

68) Hak Joon Lee, *Christian Ethics: A New Covenant Mod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21), 484.

다.

첫째, 신학적 동기와 공적 실천 간의 일관성 문제이다. 스타센은 자신의 평화윤리가 “성육신하신 갈릴리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두텁게 해석된 하나님의 주권 혹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회개로의 환기”⁶⁹⁾에 기초한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평화조성이 예수의 성육신·십자가·부활이라는 삼위일체적 신학 토대 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의 10가지 실천이 신학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침례교·재세례파 전통의 기독교 평화주의와 어떤 논리적·실천적 연계를 가지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깊은 신학적 함의가 10가지 실천이 세속적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우선성의 문제이다.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이론에서 제시된 10가지 실천이 왜 다른 세부적 실천들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이를 “실제 역사에서 전쟁의 수를 감소시킨 것이 입증된 실천들”⁷⁰⁾이라 주장하지만, 경험적 검증만으로는 윤리적 우선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거쉬는 “10가지 실천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즉각적·구체적인 단계인 반면 다른 것은 장기적이고 덜 구체적”⁷¹⁾이라고 지적하며 우선성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10가지 실천이 다른 대안들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다른 종교·문화권 사람들이 이 실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특히 종교가 없는 세속적 개인이

69) Stassen, *A Thicker Jesus*, 18-20

70) Stassen,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11-12.

71) Gushee, “A Critical Realist Engagement with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Approach,” 97.

나 기관에게, 스타센이 제시하는 산상수훈에 기초한 변혁적 주도행위나 성육신적 제자도는 실제 실행 가능한 방법론인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자도의 요구는 비기독교인에게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센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종말론적 비전은 세속적 평화 이론이나 국제정치학이 전제하는 시간관과는 전혀 달라, 공적 담론장에서 공통 기반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그의 평화윤리가 공적 영역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려면, 이러한 신학 개념들이 세속적 언어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3) 도덕적 주체성의 결여와 서구 중심적 접근의 한계

스타센의 평화윤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는 그의 실천 중심 방법론이 도덕적 행위자의 주체성과 판단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10가지 실천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개인과 집단이 지닌 도덕적 판단력, 성찰 능력, 창의적 대응 역량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물론 스타센은 그의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성품의 온전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 그리고 우리의 충성심을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더 큰 드라마의 일부로 인식할 때 형성된다”⁷²⁾고 말하며 개인의 성품 형성(character formation)의 윤리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통찰은 10가지 실천 중심의 방법론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고 도구적인 형태로 축소되는 한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스타센의 10가지 실천은 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72) Stassen and Gushee, *Kingdom Ethics*, 56.

만, 각 맥락과 상황 속에서 도덕적 행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성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의 실천 중심 방법론은 특히 지역적·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정의로운 평화의 토착적 전통들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기본적으로 서구적 맥락에서 형성된 민주주의, 인권,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어, 비서구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평화조성 주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인권·종교의 자유 증진과 같은 실천은 서구적 개인주의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유주의 발전이 더디거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문화권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전통과의 심층적 대화와 상호학습이 필수적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전통적인 정당전쟁론과 평화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평화’라는 제3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스타센은 이 패러다임을 10가지 실천이라는 구체적·경험적 방법론 속에 통합함으로써, 평화 담론을 추상적 이상에서 실천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 지침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공격무기 과잉 사용 제한, 민주주의·인권·종교 자유 증진, 국제기구 강화, 평화 단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실천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는 다층적 행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평화 조성이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특히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도덕적

상상력과 영적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행위자로 기능하면서도, 세속적 기관과의 건설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시에 스타센의 평화윤리가 직면한 한계 또한 드러냈다. 첫째, 그의 평화윤리는 권력 정치와 구조적 불의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주의적 비판에 취약하다. 둘째, 기독교 신학의 특수성과 공적 보편성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스타센의 도덕적 주체에 대한 관심 결여와 서구 중심적 시각과 방법론은 비서구적 문화·역사·종교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의 10가지 실천은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강하여,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용과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변형과 재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지역적·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간디의 자급자족 공동체운동이나 함석헌의 씨알농장과 같은 아시아 맥락에서의 정의로운 평화의 실천 사례들은 생태주의, 지역 자율성, 풀뿌리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해 스타센이 주로 상정한 ‘하향식(top-down)’ 국제기구 중심 모델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착적이고 생태지향적인 평화 실천은 전쟁과 분쟁의 종식뿐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와 실천에서는 스타센의 ‘정의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평화윤리를 각 지역의 역사·전통·가치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토착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재구성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적 재구성은 단순한 적용(adaptation)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지닌 고유한 윤리적 자원과 평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통합

하여 상호 변혁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서구적 전통의 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신학적·윤리적·정치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틀로 발전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지속적 실천 가능성을 겸비한 변혁적 평화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lan, Pierre, and Alexis Keller, eds. *What Is a Just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Allman Mark J. and Tobias L. Winright. "Growing Edges of Just War Theory: Jus ante bellum, jus post bellum, and Imperfect Jus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2, no. 2 (2012): 173-191.
- Arendt, Hannah.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1970.
- Cahill, Lisa Sowl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Pacifism, Just War, and Peacebuild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9.
- _____. "Just Peacemaking Theory: Theory, Practice, and Prospects."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 no. 1 (2003): 195-212.
- Christiansen, S.J., Drew. and Tobias Winright, Laurie Johnston, and Mark J. Allman, "Must Just Peace and Just War be Mutually Exclusive?" *Horizons* 45 (2018): 105-127.
- Cortright, David.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Gushee, David P. "A Critical Realist Engagement with Glen Stassen's 'Just Peacemaking' Approach," in *Alternative Approaches in Conflict Resolution, edited by Martin Leiner and Christine Schliesser*, 91-101.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 _____. "Glen Harold Stassen: Baptist peacemaker, Global Christian Ethicis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 no. 2 (2013): 101-105.
- Gushee, David P. and Glen H. Stassen,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7.
- _____.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박규태 역 『하나님 나라 윤리: 우리 시대의 산상설교』 서울: 비아토르, 2024.
- Gushee, David P. and Reggie L. Williams, ed. *The Way of Jesus: Christian Ethics and the Incarnational Discipleship of Glen Stassen*. Maryknoll, NY: Orbis Books, 2020.

-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One, 2013.
- Hobsbawm, Eric.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Vintage, 1996.
- Lambelet, Kyle. "Just Peacemaking: Practices, Norms, and Ends After Twenty-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SCE), Doubletree, Portland, OR, Jan 4-7, 2018.
- Lee, Hak Joon. *Christian Ethics: A New Covenant Model*. Grand Rapids, MI: Eerdmans, 2021.
- McCarthy, Eli Sasaran and William O'Neill, *Becoming Nonviolent Peacemakers: A Virtue Ethic for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U.S. Policy*. Eugene, OR: Wipf & Stock Pub, 2012.
- Stassen, Glen H. *A 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_____. "Baptist as Peacemakers," in *The Fragmentation of the Church and Its Unity in Peacemaking* edited by Jeffrey Gros and John D. Rempel, 184-195.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 _____. "Jesus and Just Peacemaking Theory." in *Must Christianity Be Violent?* edited by Kenneth R. Chase and Alan Jacobs, 135-56. Grand Rapids: Brazos, 2003.
- _____. *Just Peacemaking: The New Paradigm for the Ethics of Peace and War*.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8.
- _____.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_____. "Where is Reinhold Niebuhr When We Need Him?" *Process & Faith* 18(2009): 10-13.
- Stassen, Glen H.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1st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 Stone, Ronald H. "Realist Criticism of Just Peacemaking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 no. 1 (2003): 255-267.
- Wink, Walter. *The Powers That Be: Theology for a New Millennium*, 2nd ed. New York: Doubleday, 1999.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논문투고일: 2025년 06월 28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21세기에도 지속되는 전쟁과 분쟁은 평화윤리의 이론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임을 여실히 입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글렌 스타센의 평화윤리를 정당 전쟁론과 평화주의를 모두 초월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분석하여 그 이론적·실천적 기여와 한계를 고찰한다.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 그의 아버지 해럴드 스타센의 국제주의적 배경, 그리고 성서와 예수의 윤리에 기초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정의로운 평화조성, '10가지 실천', 산상수훈에 근거한 변혁적 주도행위와 비폭력 직접행동, 성육신적 제자도라는 네 가지 핵심 구조를 제시하며, 평화윤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켰다.

스타센은 정의와 평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법을 체계화하며, 개인에서 국제기구에 이르는 다층적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의 평화윤리는 권력 정치와 구조적 불의에 대한 고려 부족, 신학적 특수성과 공적 보편성의 긴장, 도덕적 주체성 결여 및 서구 중심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또한 지닌다. 따라서 스타센의 평화윤리는 현대 기독교 평화윤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한편, 다문화적 현실들을 다루기 위한 변혁적 재해석과 재구성을 요구한다.

주제어: 글렌 스타센, 평화윤리, 정의로운 평화조성, 비폭력 직접 행동, 성육신적 제자도
